



## LA한국교육원, 2026년 한글학교용 교과서 3만 3천권 배부 시작

- 4월 3일(금)부터 사전 신청한 119개 한글학교에 보급...미주 최대 규모
- 유아용 신규 교재 5종 포함, 총 215종 교과서·교재 보급으로 한글 학습 지원

- LA한국교육원(원장 이병승)은 오는 4월 3일(금)부터 관할 지역 내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과서 및 교재 배부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
  -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과서 및 교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에서 개발·보급하는 것으로, 매년 전 세계 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- 올해 LA한국교육원을 통해 남가주, 네바다주, 애리조나주, 뉴멕시코주 소재 119개 한글학교에 전달되는 물량은 총 3만 2,940권(942상자)으로, 미주 지역 한국교육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.
  - 각 한글학교는 한국에 근거를 둔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의 「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통합시스템」을 통해 필요한 교과서와 수량을 신청하며, 해당 신청 내용에 따라 본국에서 교과서가 제작·보급되고 있습니다.
- 이번 배부 목록에는 올해 새롭게 개발된 <유아용 한국어> 5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끕니다. 이 외에도 <한글 기초>, <맞춤 한국어>, <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>, <재외동포를 위한 안녕 한글> 등 총 215종의 다양한 교재가 보급됩니다.

-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초등용 입문서 <안녕 한글>에 이어 만 4~6세 대상의 신규 교재 <유아용 한국어>가 추가됨에 따라, 유·초등학생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모국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LA한국교육원을 방문해 교과서 및 교재 배부 현황을 직접 점검한 김영완 LA총영사는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세대 동포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한글학교와 교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” 며 “총영사관 차원에서도 한글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라고 전했습니다.

□ 이병승 LA한국교육원장은 “모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” 이라며, “한글학교가 아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” 고 말했습니다.

□ 한편, LA한국교육원은 올해 하반기 중 재외동포용 교재 외에도 한국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.

붙임 : 사진 5부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  
(213-386-3112) Homepage: [www.kecla.org](http://www.kecla.org)

<b>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</b>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<사진 1> 김영완 주LA총영사가 이병승 LA한국교육원장, 최정인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한글학교에 배부될 교과서를 점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



<사진 2, 3, 4> 3월 31일(화) LA한국교육원에 입고된 3만여 권의 한국어 교과서 및 교재





<사진 5> 2026년도 한글학교용 주요 교과서 및 교재

